

퇴근하겠습니다.

Get Out My Way Home

목차

<u>배경</u>	3
<u>챕터1</u>	4
<u>챕터2</u>	6
<u>챕터3</u>	8
<u>엔딩</u>	10

배경

썸1

주 노중은 다섯 번째 해가 지나가는 이 회사에서 이미 벌써 많은 것들을 잃은 듯했다. 정신적인 피로, 인생의 일부분으로 챙겨야 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꿈이던 정시 퇴근. 대리로 승진하고 난 후, 정시퇴근을 한 날은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

마치 갇혀있는 것처럼,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면 주 노중은 갇힌 새처럼 갑갑한 마음을 느꼈다. 회사 밖의 화려한 간판들은 자유롭게 춤추며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환영한다. 하지만 그 환영은 주 노중에게는 차가운 바람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업무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주 노중은 퇴근 후 이 대리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나왔다. 식사 후 옥상의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의 마음에는 답답한 감정이 떠올랐다. 저녁 식사 때 옆자리에서 반주를 즐기는 회사원이 생각났다. 동시에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조기 퇴근을 한 부서장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답답한 감정에 담배 연기를 내뿔으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저녁 밤하늘은 조용했다. 주대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 그 전에 집에 가야겠다.' 결심을 하게 된 그는 담배를 지저 끄고, 사무실로 향했다.

챕터1

씬2

주대리는 결심한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퇴근 준비를 시작하였다.

주변은 주대리의 태도에 당황하였다.

부사수인 김계장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 주대리에게 물었다.

“대리님 뭐하세요?”

“.....”

“대리님?”

“어, 나 집에 갈 거야”

김계장은 주대리의 대답에 당황하여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에서도 갑작스러운 주대리의 행동에 당황하였는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퇴근준비를 하는 주대리를 향하여 과장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주대리 지금 뭐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남아서 일 하는 거 안보여?”

과장의 말에도 곳곳이 마지막 짐까지 챙긴 주대리는 과장에게 각듯이 인사하며 가방을 고쳐 댔다.

“과장님, 여러분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션)

주대리의 대답에 화가 난 과장이 인턴직원과 부하직원을 시켜 주대리를 막게 하였지만 큰 결심을 한 주대리에게 동료와 부하들은 방해물이었다. 그들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고 그렇게 얹혀 싸움이 일어났다.

씬3

“이 미친! 너 미쳤어?! 어딜 회사에서 주먹을 날려 주먹을!”

“대리님! 과장님! 진정... 진정좀 하세요!!”

차마 상사인 대리에게 손을 댈 수 없었는지 주대리의 옷깃을 붙잡고 매달리는 인턴과 주대리에게 맞아 열이 받은 나머지 같이 주먹질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었다.

“대리님! 담배! 바람 쐬고 오시죠!!”

“놔- 이XX들아!”

썬4

와장창-

썬그랑-

그 소란을 옆에서 듣고 보고 있어도 타 팀원들은 자신들의 일은 아니라고 무시하고 열심히 본인의 일만 하고 있었다.

“아, 거 좀 시끄럽긴 하네. 좀 조용히 좀 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부서장 회식으로 윗분들이 사무실에 없어 다행이지...썬”

“주대리? 흥, 진급이 안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평소에도 팀과 팀사이에는 큰 유대감이 없었다. [가족 情밀회사]는 회장의 친인척 몇명이 부서장을 맡고 있었다. 친인척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회장 앞에서만 사이 좋은척 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각 부서의 직원들도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주대리의 차분한 분노의 주먹질에 전략마케팅팀은 격파되었다.

저벅저벅-

주대리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렸다.

전략마케팅팀의 격파에 당황한 직원들은 이대로 주대리를 집으로 보낸다면 다음날 이 소식을 듣고 상무에게 난리를 치는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또한 연대책임을 입에 달고 사는 상무가 머리 속에 떠오르고 그 후의 자신들의 처지가 눈에 그려지는 듯하였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욕이라도 덜 먹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모두 뜻을 모아 주대리를 막기로 결심하여 달려들었다.

“이런.... 주대리! 정신좀 차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집을 가겠다는거야?”

“대리님...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팀원들에게 주먹질이라뇨!!! 내일 회장님께 얼마나 혼나시려고 그러세요!”

“비키시죠”

“아뇨! 대리님, 제발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어서 팀원들에게 사과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일하시죠”

“비키시죠 더는 말 안하겠습니다.”

“이.....이...!”

하지만 집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한 주대리를 막기는 어려웠다. 사무실 인원이 차례대로 격파당하고 복도를 거닐고 있던 직원들도 차례대로 격파 당하였다.

사무실에서 복도로 이어진 긴 싸움은 주대리의 승리였다. 주대리는 망설임 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간 곳에는 공장입구였다.

썩5

“주대뤼..... 집에 못간다. 사무실 올라가. 일해봐.”

외국인 노동자 칸이 주대리를 걱정하였다.

공장직원들은 묘하게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손에는 몽키스패너와 작업에 사용되는 무기들을 꼬옥 쥐고 있었다. 공장 직원들 사이로 새하얀 옷이 눈에 들어왔다. 사무실 직원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아, 그새를 못 참고 내려와 일렸군’

집으로 가려는 주대리에게 무서울 것이 무엇일까? 주대리는 다시 또 주먹을 휘둘렀다.

“주대뤼!!! 정신 아프다!! 돈 많이 벌겠다 했다 나한테! 일한다 이꼬르 돈 번다! 사무실 가라! 얼른”

“칸소장 비켜!”

“흐음...”

휴게실까지 무사히 직원들을 격파한 주대리.

썩6

끼익-

휴게실 입구에는 조금 쉬려고 들어온듯 믹스커피를 먹고 담소를 나누는 직원들이 보였다.

“아니, 그래서 말이야-”

“어?! 어?! 주대리가 여기 왜 있어! 아니 말리라고 했더니 그냥 보낸거야?!”

“아닙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아니아니아니 무슨소리야!”

휴게실을 건너 출입구까지 나아갔다.

썩7

공장의 출입구에는 입사 1년차에 생산관리직 감독을 맡게 된 회장 아들과 그의 직원들이 서 있었다.

“이야- 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분노 하실까. 안그래~? 자기 말은 바 업무도 내 팽겨 치고 도망이

나 갈 궁리나하고! 직원들에게 손을 올리고! 아주 버릇이 나빠요 나빠! 너 오늘 내가 버릇 고쳐준다!”

평소 회장 아들은 핸드폰만을 보며 농땡이를 피우는 등 업무태도가 아주 불량 하였었다.

그런 놈에게 이런 지적을 받게 된 주대리는 열이 올랐다. 하지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큰 주대리는 크게 대꾸하지 않았다.

“아이고 도련님~, 비키시죠 저 오늘은 먼저 들어가봐야겠습니다.”

“이게! 도련님이라 하지 말랬지! 사람 말을 아주 개 똥으로 들어!!!? 너 오늘 죽었어!!!! 야, 재 가만 두지마!”

주대리는 항상 회장 아들 옆에서 그의 비위를 맞춰주는 이들과 회장 아들을 격파하였다.

썬8

주대리의 주먹에 하도 맞아 얼굴이 퉁퉁 붓고 쌍코피를 흘리고 있는 회장의 아들은 분했던지 숨어서 구경하고 있던 몇 명의 직원들에게 소리를 쳤다.

“가서 내 열쇠 가지고와!”

“예...? 예?!”

“내 지게차 열쇠 가지고 오라고 멍청아!! 말 못알아 들어!?”

그가 말하는 열쇠는 지게차의 열쇠였다.

‘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얻어 맞더니 제 성질에 못 이겨 지게차로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지게차 열쇠를 가지고 오라는 소리에 승기를 보았는지 숨어 있던 사람들이 몇몇 모습을 나타냈다.

“XX야, XX라!”

[엘리제를 위하여]

지게차를 타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회장 아들에게 참교육을 내려줄 시간이다.

“너나 XX라!!!!!!...”

사람과 지게차가 부딪히면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 맞을까 커다란 굉음이 들렸다.

썬9

털썩

“.....X...X.....니...xx...”

"하....."

지게차를 탄 회장아들까지 해치웠다. 묵힌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주대리는 산뜻한 표정으로 잠시 숨을 골랐다. 땅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었다.

'회장 아들을 쓰러트렸다...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일단 집으로 가자, 설마... 또 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겠어?'

퍼억-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뒤가 얼얼한 기분이 들었다. 암전이었다.

챕터2

썸10

주대리가 눈을 뜬 곳은 식당의 룸 안이었다. 지끈거리는 뒤통수를 만져보았다.

다행히 손에 피가 묻는 일은 없었다.

‘공장에서 도망갔던 사무직 직원이었나’

회장 아들과 싸울 때 숨어서 지켜보다 방심한 틈을 타 주대리의 뒤통수를 가격한 사람이 있었다.

주변의 소음에 고개를 올려보니 전략마케팅 팀의 부장님이 보였다. 그 옆으로 타 팀 부장님과 차장님이 보였다.

“아이고 우리 용감한 주대리 겠네”

‘누가 옮긴거지..’

주위를 돌아보니 익숙한 벽지가 보였었다. 분명 ‘어딜가 회식해야지’라는 가게의 2층이었다.

이 가게는 나회장의 딸이 운영하는 가게로,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회식때마다 찾는 가게였다.

과장 이하 직원들은 퇴근 후 이곳에서 저녁식사도 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자발로 가게에 방문하는 직원은 부서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직원들 뿐 이었다.

“부장님.. 제가 왜 여기...”

“아이고 우리 주대리! 한잔해!”

부장님이 술잔을 내밀었다. 주변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타 팀의 부장님과 차장님들이 있었다.

“부장님, 오늘은 그만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나...? 아니, 이 사람아! 아무리 집에 가고 싶어도 그렇지, 도련님을 패길 왜 패나... 쭉 한잔 마시고! 회장님 잠시 바람 쐬러 가셨으니 오시면 사과 드려. 도련님께도 내일 가서 싹싹 빌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못해서 어째 우리 주대리... 아이고, 일단 한잔 하자고.”

내 앞으로 내밀어진 술잔과 이어지는 부장님의 타박에 화가 치밀었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아, 오늘은 더이상 내 퇴근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용서하지 않겠다.’

다소 폭력적인 생각이었으나 이것을 계기로 주대리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결심과 동시에 테이블

을 옆었다.

와장창-

테이블을 옆은 것이 주대리여서 당황한 것인지 아니면 밥상이 옆어진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는지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 주대리...?"

"이....이...미XXX!!! 뭇들 하고 있어, 저XX X져!"

"네?...아, 예!!!"

"주대리! 정신 차려 이자식아!"

"야, 저놈 일단 잡아!"

평소에도 겁이 많은 부장은 혹여라도 맞게 될까 후다닥 룸 밖으로 도망쳤다.

룸에 남은 인원들끼리 주대리를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결심을 한 주대리의 주먹 앞에서 무너졌다.

룸안에 있던 이들을 모두 격파하여, 룸을 나왔다.

썩11

룸 밖으로 먼저 나간 부장이 불러들인 인원들인가 룸 밖의 복도에는 타 사원들이 주대리를 막아서고 있었다.

휘이잉-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은 닫혀 바람이 불지 못하는 2층이었지만 긴장감 때문인지 바람이 부는 듯 하였다.

"주..주대리...! 오늘 진짜 왜이래? 왜 안하던 짓을 해??"

"아니 진짜 막 나가기로 한 거냐고! 돌겠다 진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대리는 자신을 막기 위하여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도 쓰러트렸고 1층으로 이동하였다.

썩12

지글지글-

짼-. 와하하하

"아 역시 부장님!! 센스 최고입니다!"

“크으.... 라떼는 말이지...”

2층에서의 시끄러운 소란은 1층에는 닿지 않은 듯 시끌벅적한 회식이 한창이었다.

주대리는 술에 취한 직원들을 지나쳐 가게 입구로 향하였다. 직원들은 이미 술에 취하여 2층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는지도 눈치 채지 못하고 시끄럽게 떠들기만 할 뿐이었다.

저벅저벅-

“아하하하하! 부장님 역시.....어..?”

화장실을 가려는 듯 의자에서 일어난 직원과 부딪혔다.

“어? 주대리? 얼굴 꼬라지가 그게 뭐야...? 웬 피?...”

“혈. 손에도 피가 묻어 있는데? 뭐야 재, 무슨 짓을 한거야....”

한 두명 시선을 끌던 것이 여러명이 되었고 여러명이 한사람을 응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시끌벅적한 회식은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대리는 가게 출입구로 걸어갈 뿐이었다.

“.....? 어? 주대리 잠시만”

“어...?어! 너 어디가 이자식아! 기다려!”

“야,야!! 재 잡아!! 얼른! 아니 일단 출입문...? 아니 일단 재부터 잡아!!”

“네,,네!!”

멍하니 주대리만 바라보다가 이제야 상황이 파악되었는지 직원들이 주대리에게 달려들었다.

“정의의 철권!!”

술에 취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 이들도 있었다.

썩13

“휴. 드디어 정리했군.”

가게 안에는 주대리의 주먹에 나가떨어진 직원들이 있었다. 그들을 등지고 가게 출입구 앞에선 주대리는 자판기를 보았다.

“.....”

깨자마자 물 한잔 마시지 못한 주대리는 자판기를 보니 그제서야 목이 말라졌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테이블 위에는 물은 커녕 술만 보였고 목이 너무 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

며 숨을 돌렸다.

“커피 한잔 하니까 이제야 좀 살겠다...”

카페인이 몸에 돌아 피곤이 풀린 듯 기지개를 편 주대리는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가게 밖으로 나왔다. 가게를 나와 시원한 바람을 쐬니 머리가 맑아졌는지 주대리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가게 앞으로는 주차장이 있었고 양쪽으로 차가 주차 되어있었다. 한켠에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필 수 있도록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재떨이 앞에서는 회장과 함께 담배를 태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상무가 있었다.

주대리는 직원된 도리로 회장과 상무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상무님.”

주대리의 인사에 그의 존재를 인지한 회장과 상무였다.

“어, 어 그래 주대리. 술 좀 깨려고 나왔어?”

회장의 눈치를 살피는 상무와 불쾌해 보이는 회장이었다.

“아닙니다. 이제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 주대리?”

“네, 상무님. 오늘은 먼저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주대리? 너 미쳤어? 자꾸 눈치 없이 굴거야?”

“크흠...”

상무와 주대리의 대화에 회장은 더 불편한듯 표정으로 눈치를 주고 있었고 상무는 그런 회장의 눈치를 보며 주대리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다.

“어서 회장님께 사과부터해, 어서!”

“...하아...”

주대리가 짜증이 난다는 듯 한숨을 쉬었고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상무와 회장이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공장직원들을 팬것도 그냥 넘겨줬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내가 너!!”

“이 XXXX가? XX...!”

“주대리.... 지금 사과하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네. 못난 놈이지만 내 아들이 맞았다고 하니 부모로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나. 사과만 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네 어서 사과 하고 가게로 돌아가 한잔 하기로 하세 크흠..!”

“예, 죄송합니다만 회장님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사람이 그래도!”

주대리는 더 이상 집으로 가는 길에 방해꾼을 용납할 수 없었다. 회장에게 주먹을 날렸다.

회장님은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즐겁다는 듯 웃으며 옷을 찢었다.

“그래! 내 오늘 자네에게 교훈을 새겨주지 어서 오게!”

평소에도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듯 회장의 몸은 근육이 가득 차 있었다.

“으어어 ㅜ.....”

드디어 회장을 쓰러트렸다.

회장은 어느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에게 얻어 맞은 악당이 쓰러지는 것처럼 느릿하게 쓰러졌고 주대리의 눈 앞에는 K.O 가 보였다. 기쁜 나머지 헛것을 보고 있는 듯하였다.

“갈.... 자넨 해고야....꼭..”

해고라는 말과 함께 정신을 놓은 회장 몸 위에 주대리는 발 하나를 올렸다. 등 뒤에는 ‘퇴근’이라는 문자가 보이는 착각이 일었다.

주대리는 주변을 슬쩍 돌아보았다. 공장에서 뒤통수를 가격 당했던 것이 기억에 남은 듯하였다. 주대리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회장에게 던졌다. 그것은 팔랑 팔랑 회장의 몸 위로 떨어졌고 그것을 본 주대리는 뒤를 돌아 걸어갔다.

팔랑팔랑-

회장의 가슴위에 떨어진 것은 종이였다. 종이에선 사직서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크하하하하하!!! 이제 드디어 집에 간다!!!!!!!”

챕터3

지하철 출구를 빠져나온 주대리는 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따라 하늘이 맑고 깨끗해 보였다.

‘내가 지하철을 언제 타고 내렸지...? 개찰구 나올 때 카드 찍었었나...?’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향하려는데 뒤에서 영어가 들렸다.

“Excuse Me, How do I get to OOO store?”

“I'm sorry. I don't know. Ask someone else.”

길을 묻는 외국인 이었다. 아는 길이었지만 집으로 얼른 가고 싶은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하는 주대리였다.

“Other people don't know either. Please help me.”

외국인도 끈질겼다. 국가 이미지 손상을 잠시 고민 했었지만 주대리는 더이상 자신의 퇴근을 방해하는 모든것을 봐줄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또다시 외국인에게 주먹을 날렸다.

외국인과의 전투중에 잘못 부딪힌 양아치와 깡패들이 주대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양아치와 깡패를 처치하여 드디어 평화로운 퇴근길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주대리를 막는 것은 전도를 하러 나온 사이비들 이었다.

“아이고~ 총각 인상이 너무 좋네~. 조상님이 총각을 너무 이빠하신다~”

“네, 죄송합니다.”

차마 어른을 때릴 수 없기에 제발 이대로 다른 사람을 붙잡길 바랬지만 야속하게도 사이비 신도는 주대리를 붙잡고 다시 또 주먹을 휘두를 수 밖에 없었다.

많이 지친 주대리는 이제 제발 집으로 향하고 싶었다. 하지만 도로에서 싸움이 났다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다. 멀리서 들리는 경찰차의 소리에 이대로 잡히면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직감한 주대리는 재빠르게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멀리 도망을 가 더이상 경찰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도망쳤다. 오랜만의 달리기에 숨이 차 올라 잠시 숨을 고르고 물을 마셨다. 조금은 살 것 같아 다시 이동을 하려는 순간,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회사 직원들이 자신을 찾아 온 것이었다.

“주대리!!! 어디 혼자 퇴근을 하려고해! 너 혼자서 못간다!!!”

“아.....”

산발이 된 머리와 코피를 흘리며 절뚝거리는 동료들의 모습을 본 주대리는 잠시 주춤 하였다.

‘이미 이렇게 된거 다 해치우고 집에간다’

다시 한번 마음을 먹은 주대리는 동료들을 다시 쓰러트리고 집으로 갔다.

드디어 집앞의 편의점이 눈 앞에 보였다. 희망에 찬 주대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편의점 밖에 있는 벤치에서는 떠들석한 소리가 들려왔다.

“노중아~ 어디가노?”

주대리의 이름을 부른 이들은 학창시절 부터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무리 였던 이들이었다. 아직도 일진놀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 백수들이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그 중에는 이미 실행을 살고 나와 잃을것이 없기에 더욱 막 살기로 결정한 듯한 놈도 있었다.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던 탓인지 주대리는 일진 무리들이 눈 앞에 보이기만 하면 식은땀이 흐른다. 하지만 오늘날만큼 이상하게 용기가 넘쳐 흐르는 듯 하였다.

“어 안녕. 애들아 재밌게 놀고 난 들어가볼게.”

“으대를 그리 급하게 가노. 여 앉아 봐라 집에 가 봐야 할 일도 없을거 아이가”

그놈의 주변으로 킬킬대면 주대리를 비웃는 무리였다.

“셋 셀때까지 여 와 앉으라. 하나... 둘....”

주대리는 반사적으로 앉으라는 대로 앉을 뻔 하였으나 꼭 참아내었다. 하지만 그놈의 셋 소리와 함께 주대리의 얼굴로 향하는 주먹을 본 순간 눈을 질끈 감게 되었다.

익숙한 고통이 찾아왔고, 고통을 느끼는 순간 오늘 있었던 퇴근길이 상기되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용기라는 작은 것이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만큼 집으로 가야 겠다. 주대리는 용기를 내었다.

엔딩

친구들을 다 물리치고 주대리는 무사히 집에 도착하였다.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에 집에 도착한 것이 너무 기뻐다.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씻은 후, 드라마를 보려고 TV를 틀고 방금 깬 맥주 캔을 가지고 소파에 앉았다.

TV에서는 회사에서 동료들이 재미있다고 떠들었던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뭐지... 어디서 봤던거 같은데....”

드라마를 보는 내내 어디서 본 내용인 것 같아 이상함과 무서움을 느낀 주대리는 게임을 하고자 컴퓨터를 켰다.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삐|삐삐|삐

동네 누군가가 쓰러진 것인지 밖에서는 구급차 소리가 들렸지만 모처럼만의 자유를 방해받을 수 없다.

-...환...분! 정신.....

누군가 주대리를 흔들었다. 주대리는 눈을 감았다 떴다.

분명 방금 전까지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눈을 뜨니 이상한 차 안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주대리가 있는 곳은 구급차 안이었다.

이 모든 것이 과로로 인하여 쓰러진 주대리의 꿈이었던 것이다....